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스피치 표현

우리의 사고는 언어 없이 불가능하다. 언어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기도 한다.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을 하되자하는 것은 정보라는 경우에만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자(話者)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청자(聽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한 표현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 적절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안 된다. 한글이 모국어라 하여 우리가 모두 완벽한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말의 힘은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나온다. 말을 잘 사용하면 청중(상대)의 흥미를 자아내고 이해를 돕지만 잘못 사용하면 청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입을 통해서 내뿜는 말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구어(口語)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적절한 표현 기법이 요구된다. 첫째 적절해야 한다. 듣는 자의 특성과 모임의 성격을 고려해서 적절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지퍼지 백전불태(知彼不知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잘 알아야 한다.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도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말은 글과는 달리 일회성이란 특수성이 있기에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흐름장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정확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말을 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반듯이 정확한 어법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한 어법으로 말할 때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언어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들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자

첫째 발음이나 운율이 비슷하지만 전혀 뜻이 달라지는 단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박연하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박역하다'는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하다'의 뜻이다. '모든 것, 온갖 것'이라는 뜻으로 '물체'를 사용하고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할 때는 '전혀' '도무지'의 뜻을 가진 '일절'이란 단어를 써야 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것 같아요'는 '맛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경어와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부르시면 대답하세요.'라는 표현과 같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시~'를 넣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호칭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호칭이다. 청중이 속해 있는 집단을

칭할 때는 '우리학교', '우리 동네'라고 말하지만 청중이 속해 있지 않는 집단을 칭할 때는 겸양의 표현으로 '저희 학교', '저희 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또한 '선생님께서 사시는 집은 어디입니까?'를 '선생님께서 사시는 댁은 어디입니까?'가 맞다 넷째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숙한 언어로 구어적인 표현과 일상적인 쉬운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한다.'보다는 '축구를 좋아한다.'로 표현하면 상대의 집중력과 기억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생생해야 한다. 내용을 상대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와 같이 생생한 영상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산이 높을수록 풀이 깊다'와 같은 시각적인 영상이 일정한 단어나 어구의 반복과 대비로 생겨난 리듬이 더해져 더 생생한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은 '어' '다르'고 '야' '다르'는 원리처럼 표현을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발휘할 때 감성과 표현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인격자, 지도자로 성장한다.

사설

아동 보호·관리 철저해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하다. 아동에 대한 보호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겠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도를 넘고 있는 오늘날이다. 아동 학대 중에는 상상 초월의 경우도 적지 않다. 친부모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하나 둘이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친아빠 친엄마로부터 온갖 구박과 학대를 당하다가 죽아가는 아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몸서리가 쳐진다. 아동학대 중에는 드러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모든 아동학대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중범죄이다. 아동학대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비범죄는 정면대로 가고 있다. 아동학대가 줄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평택의 실종 아동 원영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 개탄스런 일이다. 이런 인간 사회가 아니다. 전북 지역에도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부끄러운 전과가 많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남이 나서느냐고 대드는 종자들이 있는데 팔불출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이웃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신고해야 한다. 일면서도 침묵하면 그 아동학대 범죄를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불행한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비극이 아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에 보건복지부가 병유아보호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걸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다. 아동 학대 행위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문닫게 하고 해당교사는 자격 정지시키기로 한 것 말이다. 아동학대는 인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노부모 학대 민원이나 자녀 학대 또한 중범죄이다. 친부모가 저지르는 것이든, 계부나 계모가 저지르는 것이든, 어린이집의 교사가 저지르는 것이든, 모든 아동학대는 말이 안된다. 아동학대를 하는 이들을 아예 인간이 아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데 당연한 대응이다.

논산 구제역 발생 긴장 해야

도내 축산 농가들에게 긴장되는 일이 발생했다.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그게 긴장 국면을 일깨우고 있다. 해당 농가가 신고에 늦잠을 부린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신고를 미루다가 한참 지나서야 신고를 했으니 말이다. 그것은 그동안 어떤 접촉들이 있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다른 가축 농가들로 전염됐는지 모른다는 염려이다. 아직 그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는데도 지난날의 사례로 보아서 답답한 일이다. 일단 의심이 생기면 곧바로 확진 작업과 예방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 시기를 놓쳤으니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논산은 우리 전북 지역이기도 가까울 뿐더러 예전에는 그쪽 지역의 한 생산 농가로부터 종자를 입식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산 쪽 그 축산 농가와 거래한 농가가 있다면 발빠르고 손빠른 대처가 요망된다. 그동안 구제역과 관련하여 우리

전북이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이렇듯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변에 우리 전북의 김제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를 상기해야 한다. 지금의 긴장 국면이 나중에 기우로 판명이 날지라도 아직은 긴장 국면 모드가 바람직하다.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언제든 그랬던 것처럼 발병 농가는 물론이고 인근 축산 농가들도 속대발이 됐으니 말이다. 구제역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살처분은 불가피한데 그 살처분은 축산 농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큰 불행이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이다. 신속한 퇴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북 지역이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돌아섰다고 해도 계속해서 안심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전북도와 도내 축산 농가들은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 긴장해야 한다. 감염방지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가정폭력 악순환 반드시 끊어야

가정폭력은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정 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져 한 가정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이 대물림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중에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접근통신 이용 접근금지(휴대전화, 이메일) 등 긴급입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입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입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형벌은 아니지만 긴급입시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길이 열려 가정폭력 및 긴급입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의 주거보호(주거지 순찰 CCTV설치)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폭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진성희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독자제언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지름길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 나들이를 하지 않던 노인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를 하는 노인들이 급증 하여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속 차량이 많은 새벽 시간대에는 고물수거등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 하는 노인도 많아 항상 위험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3년동안 15만2천여건이 발생해 6천200여명이 사망했고 15만8천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3%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4.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명에 비해 3배나 높아 후진국형 무질서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은 노인정경로당 등을 찾아 최근 교통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고,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의 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무단횡단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이러한 의식전환과 실천은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배봉규 완산서서학파출소 팀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